最古 불교축제 팔관회, 부산서 재현된다

부산불교聯, 9~11월 팔관회 주요 행사 개최

국태민안, 부산시 발전 기원
명상걷기, 수계법회 등 진행
부산 유일 계승 불교문화행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우리 민족 최고(最古) 불교 축제이자 국가행사인 팔관회가 재현된다. 팔관회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와 더불어 우리 민족 불교 전통 축제이며 부산불교에서 유일하게 계승 보전하는 불교 전통문화유산이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는 9월과 11월 동안 △선재동자문화전승단 △2024 팔관회 명상걷기대회 △팔관재계수계법회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등을 열어 호국불교의 상징인 팔관회를 널리 알린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연등회와 더불어 가장 성대하게 거행되었던 팔관회를 복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팔재계체험걷기대회 및 수계의식을 통해 팔관회 저변을 확대하고 선재동자문화전승단, 마정수기 법회로 미래세대의 팔관회 전승활동과 불자양성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4 팔관회 명상걷기대회

본격적인 팔관회 시작을 알리는 '2024 팔관회 명상걷기대회'는 9월 20일 오후 7시 부산북항친수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부산시민 등 불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이며, 이날 참가자들은 특설무대에서 진행하는 공개 생방송을 들으며 걷기대회에 동참한다. 부산불교방송 BBS가 생방송을 진행하며 참가자들은 팔관회와 팔재계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고 명상 실참 및 퀴즈 풀기에 동참한다. 퀴즈 참가로 선물을 받는 시간도 마련되며 완주 후에는 어울림한마당이 펼쳐져 경품추천 및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걷기대회 구간은 약 2.5km이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현장 접수 및 참여사찰을 통해 등록하면 된다.



부산불교연합회는 9월과 11월 동안 2024팔관회 명상걷기대회 및 팔관재계수계법회 등 다양한 행사로 팔관회를 널리 알린다. 현대불교신문 자료 사진

하이라이트 '2024 팔관회'

본 행사인 팔관회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범어사 일원에서 진행된다. 10월 19일은 어린이를 위한 수계법회가 열리고, 10월 20일 오후 2시에는 호국기원법회와 백희가무가 진행된다. 호국기원법회는 문헌에 따라 팔관회 당시 국왕이 왕사를 모시고 국태민안과 순국장병의 왕생극락을 발원했던 법회를 재현한다. 법회에는 부산시장 등 내빈이 참석하고, 사부대중은 인왕반야경 호국품으로 호국기도문을 올린다. 백희가무는 호국 및 불교를 주제로 한 공연이다. 10월 21일 오후 2시에는 순국장병의 넋을 기리고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호국영령위령재와 팔관재계수계법회를 개최한다.

미래세대 팔관회 전승 및 불자양성

부산불교연합회는 팔관회 전승 및 불자 양성을 위해 선재동자문화전승단을 모집하고 불자양성에 주력한다. 선재동자문화전승단은 연등회와 팔관회 등 불교 관련 행사 참여와 호국 관련 유적지 탐방 및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수계의식을 진행해 팔관회 호국정신 및 수계의 의미를 전한다.

10월 19일 열릴 선재동자 및 마정수기 수계법회에서 정식으로 계를 받고 불명을 받아 불연을 맺는다. 선재동자 수계법회는 범어사 내 특설무대에서 오전 11시, 마정수기는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Turn Toward Busan

부산 불교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에 동참한다. '턴 투워드 부산'은 2007년 캐나다의 빈스 커트니(한국전쟁 당시 종군기자)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전사자들이 안장돼 있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동시 묵념 및 추모행사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11월 11일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하는 전사자 추모의 날이다. 부산 지역 사찰들은 11월 11일 오전 11시 정각에 1분 동안 11번 타종하고 추모 순국선열을 추모한다.

여래사불교대학 '무진등' 백중기도 자비나눔 회향

9월 2일 부산 동구청서

부산 여래사불교대학(학장 선우스님) 무진등이 9월 2일 부산 동구청에서 '불기 2568년 백중 자비의 쌀 및 성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전달식에서 여래사불교대학 무진등은 백중 기도 49일간 십시일반 모은 백미 550kg와 라면 60박스를 부산 동구청에 전달했다. 성품은 백중 기도에 동참한 불자들의 기부로 모금됐다. 백미와 라면은 지역 내 소외 계층에 전달 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박동범 여래사불교대학 부학장, 신용숙 여래사 법우회 부회장, 정금미 총무를 비롯한 여래사불교대학 동문과 재학생들과 김진홍 동구청장과 동구청 복지관계자가 참석했다.

박동범 여래사불교대학 부학장은 "백중 기도 기간 동안 동참해준 불자들의 정성을 소외 계층을 위해 회향할 수 있어 진심으로 뿌듯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신불산 케이블카 절대 안돼!"

통도사, 9월 3일 총궐기대회
1000여 사부대중 거리행진

"자연도 문화유산도 지구도 망치는 케이블카 반대한다!"

영남알프스(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인파가 거리를 메웠다.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와 울산사암연합회는 9월 3일 울산 시청 및 거리에서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울산 시청에서 출발한 거리행진에는 통도사 사중스님들과 울산사암연합회 대중스님들을 비롯해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참여로 줄을 이었고, "자연도 문화유산도 지구도 망치는 케이블카"라고 규탄했다.

궐기대회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전 주지 원산 스님이 참여했으며 주지 현덕 스님, 영축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원 스님,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으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불교환경연대가 연대했다.



걷기행진에 앞서 영축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원 스님은 목소리를 높여 "케이블카는 세계문화유산 통도사와 수행환경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필요한 기획"이라며 "실효성 없는 공사 계획을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전 주지 원산 스님은 "영축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통도사는 세계문화유산으로써 그 가치를 보존하고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와 울산사암연합회는 김두겸 울산시장에게 '신불산 케이블카 건설 사업 서한'을 전달하며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한을 통해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신불산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자연유산 중 하나로, 수려한 경관과 함께 풍부한 생태계를 자랑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신불산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종들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이들의 생존이 케이블카 건설로 인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공사 계획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신불산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영축산과 신불산을 지키기 위해 통도사 사부대중과 불자들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베트남 빈곤 아동 위한 자비나눔

부산불교복지협, 8월 28일~9월 1일 베트남서

사단법인 부산불교복지협의회(회장 정여 대종사)가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베트남 일대를 방문해 지역 빈곤 아동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해외지원사업 및 우수종사자 연수로 진행된 이번 해외 방문은 베트남 하노이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부산불교복지협의회장 정여 대종사(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부산불교복지협의회 수석부회장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를 비롯해 성문 스님, 석산 스님, 효문 스님 등 출재가 30여 명이 동참했다.

먼저 부산불교복지협의회는 8월 28일 빈곤아동이 밀집 거주하는 베트남 하차우면을 방문해 2000달러를 지원했다. 성금은 1100명의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SOS 응급키트' 구매에 활용된다. 아울러 아동들에게 제공될 간식 1100인분(150만원 상당)을 함께 기부했다. 이번 해외지원사업은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에서 후원금 1500만원을 후원해 성사됐다.



사단법인 부산불교복지협의회가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베트남 일대를 방문해 지역 빈곤 아동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회장 정여 대종사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현장의 열악함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지역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의료 및 복지시설이 특히 부족하다"며 "베트남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이렇게 성대하게 맞아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을파소 관음사 운곡 스님 독거노인돕기 성금전달

9월 3일, 부산 금정구청

부산 을파소 관음사 주지 운곡 스님이 9월 3일 부산 금정구청에서 독거노인돕기 성금을 전달했다.〈사진〉

전달된 성금은 지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부산 온천천 야외 문화광장에서 진행한 선명서화 나눔전으로 마련한 성금이다.

전달식에서 운곡 스님은 "나눔행사를 원만히 회향해 독거어르신을 위한 성금으로 전달할 수 있어 감사하며 기쁘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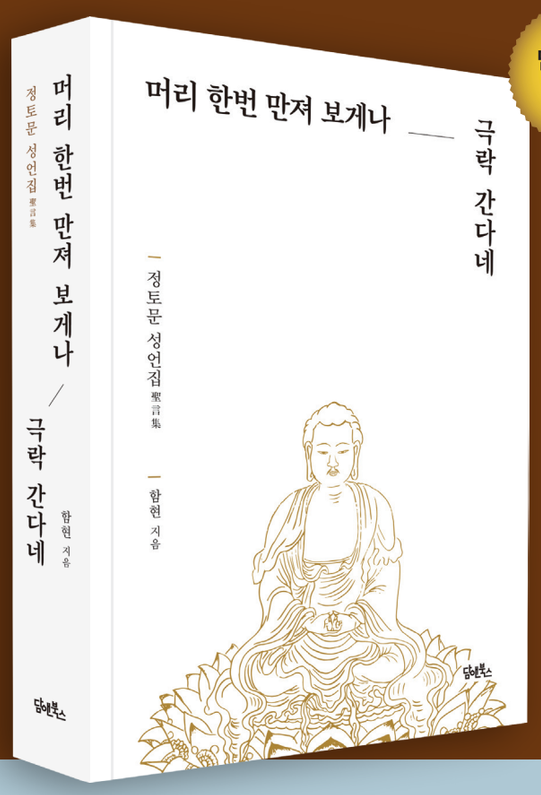


전 봉암사 주지 함현 스님의 '정토행자' 공표
정토신앙으로 안내하는 '염불수행 지침서'

정토문 성언집(聖言集)

머리 한번 만져 보게나

극락 간다네



함현 지음 | 150x210 | 432쪽 | 18,000원

"나는 공성(空性)의 오두막인 극락정토를 장엄하는 살림꾼, 아미타부처님의 본원(本願)을 깊이 믿고 널리 권하는 정토의 종지기가 될 것입니다."

이보게 함현!
이제 머리나 한번 만져 보세나.
머리를 돌려 스스로를 보아야 하네.
눈빛을 되돌려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네.
그래야 출가의 첫 뜻을 저버리지 않고
진정으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지 않겠는가.
_본문 중에서

| 도솔 함현 兜率 涵玄 |
속리산 법주사에서 월암당 이두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 송광사, 백양사, 극락선원, 대승사, 동화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종립특별선원 문경
봉암사 주지, 지리산 선화사 주지를 역임했다. 북한산 도솔원에서
수행정진을 마치고 현재 충청북도 청주 관음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문의 (02)765-1251 가까운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담앤북스